

특별기획

# 군산항 환적자동차화물 허용 건의

## 시의회 “광양항 카보타지 부활추진 지역경제파탄 이르게 하는 정책” 철회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117년 역사의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환적자동차화물을 허용해 주도록 건의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광양항 환적자동차 유치 활성화를 위해 카보타지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군산항 존립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책이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군산항은 1899년 개항 이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대한민국 10대 무역항으로 성장했고, 외국적 선박이 군산항~평택항~광양항~목포항을 오가며 일본과 중국에서 조차 군산항으로 자동차 환적 화물이 유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난 2015년에는 군산항 전체물동량 1847만 7천톤의 18.7%에 해당하는 30만천대(346만2천톤)의 환적자동차를 처리하여 120억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으며 올해는 16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등 군산항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군산항에 카보타지를 적용한다면, 군산항 320여명의 하역근로자들과 수많은 관련업체 파산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군산항에 국비 51억원을 들여 1만5000명의 환적자동차 아적까지 조성해 놓고 돌연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 취급을 금지한다면, 이 아적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뿐 아니라 국가비리와 전복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국내 항만 간 경쟁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항을 제외한 국내항만 카보타지 시행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불합리한 정책이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지역의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이 환적자동차화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여 서해중부권 관문항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환적자동차화물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김관영 국회의원에 송부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익산시, 채수훈 비서실장 내부발탁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17일 익산시 비서실장 채수훈(49)(사진) 기초 생활과 사회복지주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장 비서실장 인사는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 413 익산시장재선거를 통해 취임한지 두달여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시장의 그림자 또는 심복으로 통하는 시장 비서실장이 외부 또는 내부에서 인선될 것인지 초미에 관심사였으나 결국은 내부에서 발탁된 것으로 결론났다.

한편, 신임 채수훈 익산시 비서실장은 황등출신이고 한일고 졸업과 원광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이후 25여년간 사회복지사로 재직해왔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서부발전, 중·고등학생 120명 장학금 전달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처(처장 김귀태)는 20일 군산시 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원태)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120명에게 장학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

군산발전처는 지역 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장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자, 예체능특기자, 저소득층 자녀 120명을 각급 학교에서 추천받아 선발했다.

추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 50만원과

장학증서가 수여된다.

김귀태 군산발전처 처장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우수 인재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미래의 동량이 될 젊은 청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군산발전처는 지난 2010년 발전소 준공 후 지난 6년 동안 738명의 학생에게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1억 원이 넘는 교육기자재를 지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 한 시민 옥산면에 야생화 기부

군산의 한 시민이 “청암산 구불길에 야생화가 피어났으면 좋겠다”며 꽃무릇 7천본을 비롯해 6종의 야생화(약 5백만 원 상당)를 옥산면에 기부에 후원함을 더해 주고 있다.

청암산 자락에서 현재식물을 운영하는 박기우씨는 20일 야생화 꽃씨를 “청암산에 식재해 청암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며 손수 야생화를 채취해 기부했다.

심문대 옥산면장은 “빠른 시일내에 적기장소를 선정해 자생단체와 함께 야생화를 식재해 청암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산면은 지난 5월초 청암산 입구에 루드베기아 민어본을 식재해 청암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꽃길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등 아름다운 옥산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추진

### 1억 5,000만원 예산 범위내 공개모집...질소산화물 저감량 큰 사업장 우선 선정

군산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저녹스버너란 연소시 산소 온도 시간 등을 조절해 연료효율을 증대시켜 연료비를 절감하고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저감하는 고성능 버너로 일반버너에 비해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최대 83%까지 절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

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와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이다.

다만,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및 신규 설치 가스 또는 경유류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양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시는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이중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400

만원에서 1천2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보일러의 유형과 용량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한다.

장기호 군산시 환경정책과장은 “저녹스버너를 교체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연료비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을 위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 익산시, 이리초 학생 옹포면 친환경단지 농촌체험

익산시가 20일 이리초 5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옹포면 친환경단지에서 손모내기, 감자 캐기 등 농촌체험을 운영했다.

친환경 농촌체험 활동은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4개 초등학교 176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옹포면 일대 친환경단지에서 손모내기과 감자 캐기를 통해 벼의 재배과정과 친환경재배의 어려움을 느끼고, 명천마곡처리장의 친환경

쌀 도정시설 견학을 통해 생산된 쌀의 도정 및 유통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나영(초) 학생은 “직접 모내기를 해보니 우리가 먹는 쌀이 어떻게 재배되어 우리밥상에 오르는지 알게 되었고 한 톨의 쌀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이리초 김은하 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손모내기과 감자캐기 체험을 통해 벼의 소중한과 수확의 기쁨을 느끼며,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재배되어 오는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교실 밖 환경에서 새로운

체험활동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재배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느끼는 만족도가 익산의 농산물 구입으로 이어져 지역 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향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익산시는 가을철(10~11월)에 수도권 지역의 학교와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이나 홍보기관을 초청해 고구마캐기, 사과따기 등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문화축제 관람, 문화유적 답사 등으로 농촌체험뿐 아니라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 익산시농민회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내일~29일까지 10개면에서 진행

익산시농민회(회장 한동웅)는 2016 대학생 여름농촌봉사활동을 6월22일부터 29일까지 6박7일 동안 익산시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학생 300여명은 10개면 16개 마을에서 논 김매기, 고추밭 풀매기, 감자 수확 등을 도우며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힘을 보탠다.

연세대 학생들은 4년간 봄, 여름, 가을 3번에 걸쳐 익산시 농촌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 마을들은 중간에 마을 잔치를 하며 대학생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익산시농민회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농업과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고 익산시를 홍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군산시는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강력조치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일제점검에서는 인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사용 여부, 물건적치 여부 및 주차장 유지관리 적정여부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총 43개소를 점검한 결과 칸테너 9개, 설치 7개소, 물건적치 2개소 등 총 9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2개월의 시정명령을 거친 후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국립인 건축경관과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적절하게 사용하느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 익산 나라사랑 평화나눔 꿈나무 사생대회

### 25일 배산체육공원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해에 이어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꿈과 희망을 그리는 축제가 열린다.

(사)자원봉사단 만남 익산지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합사모)은 오는 6월 25일 오전 9시 배산체육공원에서 ‘제4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꿈나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어린이들에게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기르며 하기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이 행사는 전북서부익산보훈지청이 주최하고 합사모가 주관하며, 익산시청과 익산교육지원청, 익산경찰서, 사익산시지원봉사종합센터에서 후원한다.

이번 사생대회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접수(무료)하며, 유치부 초등학교 학년별로 나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제출한 어린이들은 다양한 무료 체험 부스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 부스는 6.25기념 사진전시회, 우드마커스 만들기, 다트게임, 예절체험(서예), 세계평화 포토존, 풍선아트, 나라사 페이스페인팅,



(사)자원봉사단 만남 익산지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합사모)은 오는 6월 25일 오전 9시 배산체육공원에서 ‘제4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꿈나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부채 만들기 체험 등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통해 나라의 소중함과 평화에 대한 소망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합사모 어린이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응원, 무용단, 핸드벨 합창단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김현성 합사모 대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역사를 바로 알고 나라에 대한 소중함과 평화를 전

하기 위해 본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평화를 사랑하고 미래 사회의 큰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합사모는 지난달 ‘아하!대이 나눔페스티벌 Fun-Fun 나라사랑’ 행사에서 전북서부보훈지청과 함께 우리 지역 호국영웅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익산=장양원기자

추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 50만원과 장학증서가 수여된다.

김귀태 군산발전처 처장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우수 인재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미래의 동량이 될 젊은 청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군산발전처는 지난 2010년 발전소 준공 후 지난 6년 동안 738명의 학생에게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1억 원이 넘는 교육기자재를 지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대책 추진

추위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군산소방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산소방서는 구급대원 사기 진작 및 119구급대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산소방사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 도내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4건 발생, 다른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많은 발생 건수를 보이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대부분은 음주자에 의한 것으로 전체 18건의 폭행피해 중 17건(94.4%)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대책 일환으로 현장 출동대

원을 대상으로 폭행방지 대응매뉴얼 교육을 통한 폭행 피해의 최소화, 추위자에 대한 심리적 견제를 위한 펌블런스 출동 등 조직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폭행피해에 상시 대처하고 폭행사범에게 엄격한 법적응을 통해 폭행피해 액체를 위한 ‘폭행피해 대처 특시령’을 운영 할 계획이다.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김성근)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추위자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공권력 도용으로 간주해 폭행사범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해경, 달라진 수상레저안전법 숙지 당부

####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1년 이하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부과

해경이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법률안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레저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주요 바뀐 내용은 무면허, 음주운행,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 수상레저기구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 활동을 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해지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어 레저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때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이 없을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해진다.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에도 그동안은 사업등록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 후 10년을 경과한 수상레저사업장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갱신을 받아야 영업을 가능하게 한다.

이외에도 보험가입, 안전검사, 수상레저사업장 영입제한 사유 등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명시해 법률 오해석을 줄이고 안전문화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 드림스타트, 아동 스트레스치료교실 운영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예술심리연구소 마음길(대표 박선희)과 협약을 통해 아동의 내적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위축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내 맘에 따라 바람 행동 치료교실’을 운영한다.

행동치료교실은 미술·공예활동 등을 통해 아동이 가지고 있는 내적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타인에 대한 관계형성 등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이다.

드림스타트는 그동안 아동에게 실시했던 KPRC(아동인성평정척도)검사결과와 사례관리 시 아동의 언어, 행동 등을 파악해 대상아동 10명을 선발했다.

이번교육은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문가의 진행으로 운영되며, 문제행동의 정황을 원인파악과 치료로 아동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드림스타트는 지난 5월에 추진한 KPRC(아동인성평정척도) 결과를 통해 행동치료교실 외에도 행동한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과 ‘원어치료 프로그램’ 등 아동과 가족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기위한 상담 및 공동 작업능력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